



# 기독일보



2024년 5월 9일 목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9호

## “한국교회, 결혼과 가정의 가치 강조해야”

### 목회데이터연구소, ‘결혼 거부감’ 나타난 조사 결과 소개하며 주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져 ‘인구 절벽’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거부감까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최근 여성가족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결혼 및 가족 관련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목데연에 따르면 최근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다. 25~49세 미혼 국민 대상으로 묻은 ‘결혼 의향에 대해 39%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결혼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비율은 52%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미혼 남성(28%)보다 크게 높았다.

목데연은 “이는 경제적 부담, 개인의 자유와 경력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으로 보인다”며 “20~44세 기임기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에 73%가 동의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한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이다가 29%, ‘결혼생활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가 28%의 동의를 얻어, 적지 않은 국민이 결혼제도의 당위성을 벗어나려는 움직임 보였다. 목데연은 전했다.

목데연은 한국교회를 향해 “결혼과 가

정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며 “교회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대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결혼과 가정이 개인의 삶과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변화하는 세대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개인주의, 평등주의 성향은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목데연에 “이번 조사 결과 중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는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가 대부분(84%)의 동의를 얻었으며,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도 10명 중 7명(73%)

이 동의해, 개인의 자유가 결혼제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 건강한 가정은 부모 자녀 간 존중과 자유로운 소통 안에서 더 굳건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고 포용적이고 관련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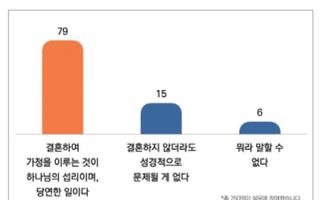
아울러 “한국의 가족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이라며 “교회는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제고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혼... 목회자 10명 중 2명, 가능 혹은 판단 유보

한편 목회자 10명 중 2명(20%)이 ‘비혼’에 대해 가능 혹은 판단 유보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목데연은 목회자 7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결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79%)의 목회자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15%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6%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목데연은 “10명 중 2명(20%)은 ‘비혼도 가능 혹은 판단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며 “비혼주의가 팽배한 사회 흐름 속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속 하나님의



“비혼주의와 비혼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에 대해 목사님의 생각에 더 가까운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드러나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교회 강단에 선 ‘소통 강사’ 김창욱, 그가 말하는 ‘관계’의 비밀

### 8일 오론교회 새생명축제로 ‘공감과 소통’ 주제로 강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말, 언어는 창조의 시작이자 우리 관계의 시작입니다.”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욱 교수(김창욱아카데미 대표)는 8일 서울 강동구 오론교회(담임 주경훈 목사) 강단에 올라 이렇게 강조했다. 기독교인인 그는 오론교회의 ‘2024 새생명축제 Welcome

Home’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대표는 사람과 사람, 특히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 보다 더 정확하게는 ‘예쁜 말’ 혹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할 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소 이런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공감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이들에게 ‘잘산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돈이 많은 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은 ‘부자’라며 ‘잘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리가 좋다는 뜻이다. 돈이 없어도 사리가 좋은 부부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사람들이 결혼과 같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자주 상대방의 외모 같은 것을 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우리의 관계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것은 ‘공감’이고, 이를 토대로 한 ‘언어’라고 그는 강조했다. 가령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을 때, 아내가 같이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 그리고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 편을 들어주며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언어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오론교회에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김창욱 교수 ©김진영 기자



오론교회 ‘2024 새생명축제 Welcome Home’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창욱 교수 ©김진영 기자

이것이 변하려면 서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몰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마치 혈투병을 앓는 여인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강연과 같은 것들을 자주 듣다 보면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점점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상대와 공감하고 소통하려면 일단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장소에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통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데 이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저 그것에 좌절하기보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처럼 대한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김창욱 교수는 원래 예정된 강연 시간인 1시간을 넘겨 약 1시간 30분 동안 그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며 이날 오론교회를 찾은 이들을 ‘집중’하게 했다. 강연 시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 오랜 경험에서 우리나라 못한 말로 청중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다. 강연 주제 그대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었다.

한편, 오론교회는 5월 한달 간 ‘2024 새생명축제 Welcome Home’을 진행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매주 수요일 오전예배에는 이날 김창욱 교수를 시작으로 송주현 목사(우리는교회 담임, 5.15), 이광기 집사(텔런트, 5.22)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26일 주일에는 오론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김창욱 교수의 강연이 끝나자 강단에 오른 오론교회 원로 김은호 목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라고 말한다”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그처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그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UMC 아프리카, 친동생에 결정 ‘방연자실’ >> 2면
- “챗GPT, 창조적 목회 활용방안 모색해야” >> 3면
- 조성환 목사 “항상은 해 가운데 거하는 삶” >> 22면



UPPERHOUSE 롯데건설

### “자연이 결국 최고의 럭셔리다”

강남권에서 만나는 5만 6천여평의 대규모 블록형 타운하우스 단지

대규모 호텔급 커뮤니티 특화시설 제공 (스파, 사우나, 레스토랑 등)

1층 단독 정원 사용, 3층 단독 루프탑 사용    국내 최고의 조경, 건축, 설계회사 참여

유튜브에서 “생생본양복”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1666-1691

※상기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